

삼성, 운영자금 1조 물품대금 1.6조 조기지급

>> 1면 '재계, 코로나 피해...'서 계속

현대 매출 타격에도 협력사 챙겨
삼성 항공배송 물류비 실비 지원
부품승인 시간·절차 단축 등 실시

자동차 업계는 물론 기계, 전자 등 분야도 다양하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상생 경영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는 7일부터 울산·아산 등 국내 생산공장 가동을 멈췄다. 기아차도 오는 10일부터 자동차 생산을 중단한다. 중국 지방정부가 춘절 연휴를 오는 9일까지 연장하면서 한국 부품사의 중국공장으로부터 의존하던 부품 '와이어링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 부두.

하니스' 재고가 동이 났다. 공장 재가동 시점은 사실상 중국 결정에 달렸다. 현대차그룹은 당장 국내 자동차생태

계 붕괴를 막기 위해 350여개 부품 협력사에 대한 1조원 규모의 지원에 나섰다. 이번 사태로 현대차그룹도 매출 타

격이 불가피 하지만, 현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이번 사태로 회생 불능 사태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우리도 힘들지만 협력업체부터 챙겨야 한다"고 지시했다.

삼성도 9일 조업 중단, 부품 조달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협력회사의 경영 안정을 위해 대규모 자금 지원에 나선다.

자금 지원에 참여하는 계열사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등이다. 삼성은 상생펀드와 물대지원펀드 등 상생 프로그램과 연계해 1조원의 운영자금을 무이자·저금리로 대출 지원하고, 1조6000억원 규모의 2월 물품 대금

을 조기에 지급한다. 특히 삼성전자는 협력회사가 긴급 자재 공급을 위해 항공 배송으로 전환하는 경우, 물류 비용을 실비로 지원한다.

협력회사가 부품 조달을 위해 원부자재 구매처를 다변화하는 경우에는 부품 승인 시간과 절차를 단축하고, 이를 위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또 중국 진출 협력회사에는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도 공급한다. 삼성전자는 또 협력회사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협력회사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삼성 측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협력회사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확진자 3명 늘어 총 27명... 3명 완치·퇴원

25번째 환자 73세 한국인 여성
26·27번, 25번의 아들·며느리
의심증상 21명 증가한 96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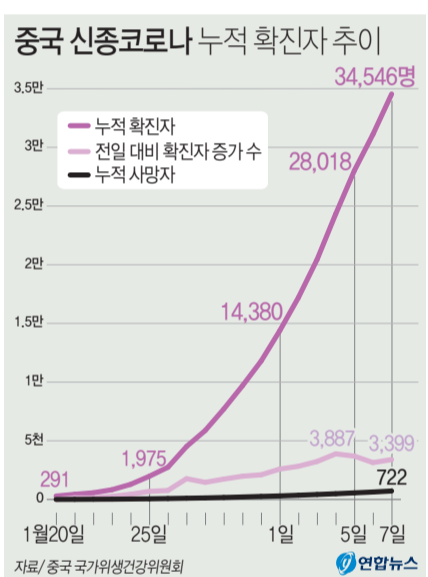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3명이 추가로 발생해 확진자가 27명으로 늘어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25번째 환자(73세 여성, 한국인)가 발생한 데 이어 오후 26번째(51세 남자, 한국인), 27번째(37세 여자, 중국인) 환자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26번 환자와 27번 환자는 각각 25번 환자의 아들과 며느리로 25번째 환자의 감염원으로 추정돼 왔다.

이들은 중국 광둥성을 방문(2019년 11월~2020년 1월 31일)하고 지난달 말 귀국했다. 25번째 환자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입원해있다. 25, 27번째 환자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이다.

한편, 이날 신종코로나 확진자 1명이 추가로 완치돼 퇴원했다. 지난달 27일 국내에서 네 번째로 확진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55세 한국인 남



중이다. 현재는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중국이 아니더라도 신종코로나가 유행하는 국가를 다녀온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신종코로나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800명을 넘어섰다. 사망자가 이틀째 80명을 넘어서며 희생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3만 7198명, 사망자는 81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중국 전역에서 확진자는 하루 전보다 2656명, 사망자는 89명이 각각 늘었다. 특히 일일 사망자 수가 7일과 8일 이틀 연속 80명을 넘어섰다.

다만 일일 신규 확진자의 경우 지난 3일 3235명을 기록한 후 매일 3000명을 넘었으나 8일 처음 2000명 대로 감소하면서 일말의 희망을 주고 있다.

국가별 확진자는 일본 89명, 싱가포르 40명, 태국 32명 등으로 늘었으며, 이제까지 전세계 28개국, 총 3만 7541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신종코로나, 사스보다 경제에 악영향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중 경제 차지 비중 2003년보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2003년 '사스'보다 글로벌 경제 활동에 더 큰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9일 '중국 제조업의 글로벌 위상 변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보고서를 낸 홍준표 연구위원은 중국 내 확진자가 늘며 글로벌 경제가 더 둔화할 수 있다는 예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중국에 제조업 가동에 차질이 생기면 글로벌 제조업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전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보다 훨씬 커졌기 때문이다. 세계 총생산(GDP)을 기준으로 2003년에는 4.3%에서 지난해에는 16.3%에 달했다. 세계 상품교역 대비 중국 상품교역 비중도 2003년 5%대에서 2018년 10% 이상으로 크게 확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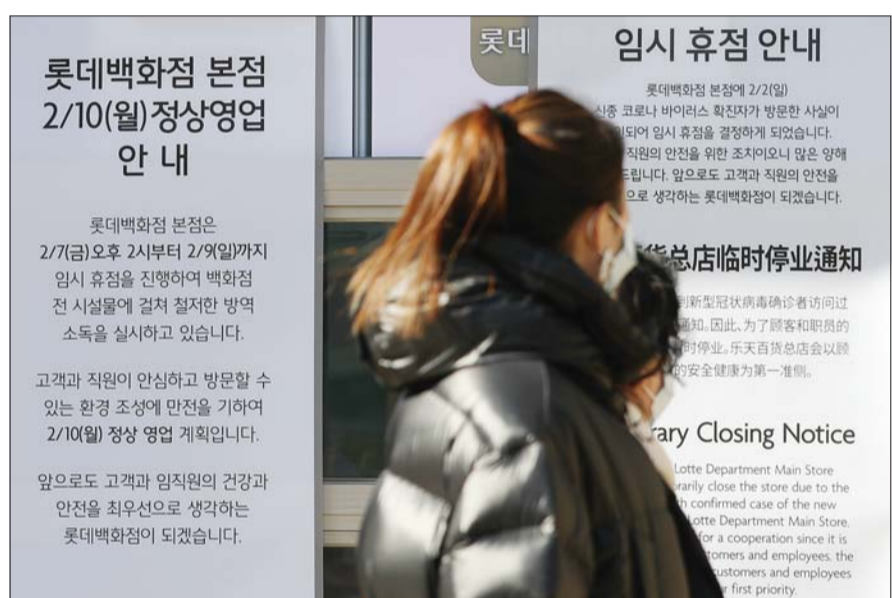
중국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도 마찬가지다. 중국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전 세계에서 기여하는 최종소비 비중은 2005년 3.8%에서 2015년 11.3%로 크게 늘었다. '컴퓨터, 전자 및 전기장비 산업' 분야에서도 중국이 기여하는 비중은 2005년 9.3%에서 2015년 21.5%로 대폭 성장했다.

한국 제조업도 중국산 부품에 크게 의존하는 상태다. 2015년 국내에서 소비된 제조업 제품 전체 부가가치 중 중국산 비중이 10.9%에 달했다.

중국이 원자재 시장에서도 '큰손'으로 떠오른 만큼, 원자재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원유 소비량에서 중국 비중은 2003년 7.2%에서 2018년 13.5%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신종 코로나로 중국 경기가 단기간에 급락할 수 있다며, 국내 내수 경기도 동반 침체할 수 있는 만큼, 추이에 따라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동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재용 기자 juk@



롯데백화점 본점, 임시휴업

9일 서울 중구 명동 롯데백화점 본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임시휴업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밥상물가 불안?... 채소·고깃값 되레 하락

농식품부, 무 35%, 양파 11% 하락
중 수요 급감에 러시아산 키크랩 폭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중국산 먹거리 수입이 제한되며 우리나라 밥상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달리 국내 식품 물가는 되레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 주요 농식품 가격을 평년과 비교했을 때 무는 34.5%, 양파는 10.6%, 건고추는 13.8%, 간마늘은 40.3%, 대파는 38.6%, 시금치는 53.2%, 애호박은 14.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청양고추는 17.4%, 파프리카는 10.0%, 딸기는 6.3%, 청상추는 65.3%씩 평년보다 낮은 시세를 보였다. 특히 건고추와 간마늘은 하락 폭이 더욱 커 수급 조절 매뉴얼 상 각각 '주의', '경계' 단계로 분류됐다.

이는 중국 내 신종코로나 확산으로 수입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국내산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과는 반대되는 결과다.

배추와 당근, 양배추는 평년 대비 25~45% 이상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지만, 이는 신종코로나 영향이라기보다는 날씨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고급수산물인 러시아산 키크랩은 신

종코로나 영향으로 몸값이 폭락했다. 중국 우한 화난 수산시장이 문을 닫는 등 중국 수요가 급감하면서, 중국으로 가려던 물량이 대거 한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수산물 시세 플랫폼 인어교주해적단에 따르면 7일 기준 키크랩(블루·A급·대 기준) 가격은 1kg당 4900원으로 평년 가격 7만~8만원보다 최대 40% 가까이 값이 내려갔다.

돼지고기는 1kg 도매가격이 6일 기준 2972원으로 평년 같은 시기(4129원)보다 28%나 낮았다.

반면 음식점이 즐겨 쓰는 중국산 김치의 경우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신종코로나 사태 이후 공장 가동과 물류 시스템이 차질을 빚으면서 중국산 김치를 주로 쓰는 영세업체들에 영향이 미치는 것이다.

이같은 사태가 장기화되면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식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김치의 80~90%가 중국산으로 추산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배추, 당근, 양배추 등 가격이 오른 품목은 가을 태풍 등으로 날씨가 좋지 않아 작황이 부진한 영향으로, 지난달부터 이미 가격이 올랐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mj@